

'남도 전통예술의 향취를 전주에서 느껴요'

전남도립국악단 초청공연 21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썩마루 대극장서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전남도립국악단을 초청해 역동적인 국악관현악 연주와 무용, 마당창극, 타악과 포먼스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21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썩마루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2015년부터 이어온 호남교류공연의 일환이다.

교류공연은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산하 관악예술단체의 상호교류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전남에 이어 2016년 전북, 2017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개된다.

공연의 첫 무대는 남도의 풍물가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로 연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강남 갔던 제비가 흥보의 은혜를 갚으려고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제비노정기'를 관현악과 가야금 병창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국악관현악 'Our Dance'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송광식이 국악기와 호흡하기 위해 만든 곡으로, 국악기와 피아노의 조합에 재즈적인 연주가 더해져 풍성한 선율을 선사한다.

국악관현악 연주에 이어 가·무·악의 향연도 곁들여진다.

'입춤 소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추는 춤으로 내재적인 흥을 목격하면서도 멋스러운 춤사위로 표현한다.

마당창극 '화초장 대목'은 흥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보가 흥보



공연의 첫 무대는 남도의 풍물가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로 연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제비노정기'를 관현악과 가야금 병창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집에 찾아가 부자가 된 사연을 듣고 화초장을 얻어오는 부분으로 판소리 흥보가 중 가장 해학적이다.

공연의 대미는 타악 뮤지션 '신명의 타고'가 장식한다.

이날 타악의 흐름에 맞게 무용수들의

소고춤과 사물놀이팀의 웅장한 타고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려한 무대로 신명을 돋운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에 매는 도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

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국립무형유산원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문의 063-290-5531 또는 061-285-6928. /정해은 기자



태고음악회(왼쪽) 베이비 음악회 (오른쪽)

익산예술의전당, 임산부·유아 위한 공연 개최

익산예술의전당이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기획공연 두 편을 마련한다.

22일 오전 11시 마티네 콘서트로 열리는 베이비클래식 <반짝반짝 작은별>은 임산부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한 새로운 감각의 태고 음악회이다.

이날 공연에는 앙상블리예티, J스트링콰르텟, 클라리넷 신재훈이 출연해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베토벤 엘리제제를 위하여 등을 연주하며 베이스 이대혁은 에델바이스, 퍼헬스 러브 등 깊은 울림이 있는 노래를 들려준다. 또 남남 등 아빠가 들려주는 동화극연을 비롯해 JTV 서주영 아나운서의 힐링 토크 무대도 이어진다. 공연은 전석 무료.

24일 공연되는 베이비드라마 <꿀꿀꿀 애벌레>는 평소 클래식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사 없이 움직임과 음악만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펼쳐진다.

작품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한 꼬마 애벌레 두 마리의 마법 같은 모험, 용감한 애벌레의 귀여운 점프와 장난,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춤과 위기를 이겨내는 익살스런 애벌레들의 움직임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1만원.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850-3254 /정해은 기자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 작품으로

박인선 작가, 2016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정크아트 부문 대상 수상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국환경공단이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개최한 '2016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에서 정크아트 부문 대상을 받은 박인선의 작품 '가족으로 살아가기'에 담긴 의미다.

박 작가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폐주방 용기와 페스테인레스, 페일부미늄, 철을 소재로 동물 가족을 표현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에 대해 "버려지는 폐기물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정크아트의 특징을 잘 살려내어 공모전 주제 및 취지와 가장 잘 부합하는 등 소재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환경사랑공모전에는 총 2,438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표절심사와 국민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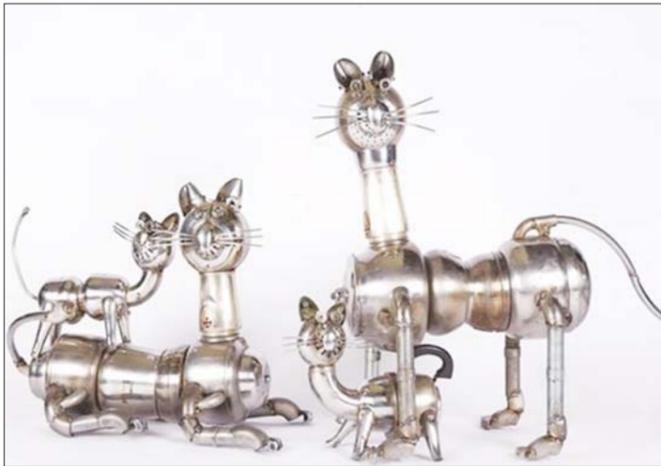
등 단계에 걸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이모티콘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박 작가의 이번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정크아트 부문 대상은 지난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며, 작가의 작품은 내년 초등학교 3학년 미술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정크아트 대상 상금은 7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 시상과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www.kec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35-6197.

/정해은 기자



위 작품의 이름은 '가족으로 살아가기'다. 익숙한 물건들이 모여든, 찌그러진 대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낸 대로 쓰임새도 각각이었다. '이 세상에는 쓸모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어느 선지자의 말대로 소용을 다한 것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서면 쓸모이상의 가치를 만든다. 소용을 다한 것들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서로 조합을 하니 가족이 되고 행복해 보였다. '무용 지용'이란 말이 실감이 난다.

정읍시, 23일 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주제로

정읍시가 주최하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주관하는 2016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을 주제로 오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의 위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복대 하우봉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의 정읍의 역할' '전주화약 체결의 전주 동향'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추진과 전주화약'이라는 네 가지 주제발표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의 열린 학술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과 관련해 불거졌던 전주화약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의 정읍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국가 기념일 제정 촉구를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등 동 학관련 단체회원 다수와 함께 학술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립대하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9월 19일)

▷쥐띠
46년생: 컨디션도 좋지 못하니 무리는 금물.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치 않은 운이다.72년생: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 조건을 구하라.
84년생: 자신의 생각만 믿고 움직이다가는 큰 코 다치는 운이다.

▷소띠
49년생: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 보라.
61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를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자신보다 능력있는 사람의 조건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이 머무르기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숨은 폭병으로 인해 신경쓸 일이 생긴다.

▷토끼띠
51년생: 과한 것은 모자른것만 못한 법.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이 나타나 고민할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니 투기는 금물이다.
87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용띠
52년생: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부 마음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8년생: 먼저 연연 나중에 일게 되는 운.

▷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올라오는 회기를 가라앉혀라.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양띠
55년생: 문서에 길함이 비추니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해서 편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92년생: 소화가 계통이 약해지는 운.

▷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구설도 함께 따르다.
69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갈 때를 구분.
81년생: 포기하지않는다면 중궁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다.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

▷돼지띠
47년생: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을 좋지 않으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